

靑 “2월 개각 없다…총리 교체 가능성 제로”

인사검증에 시간 소요…북미 회담·김정은 답방도 변수
3월 유력…김부겸·도종환 장관 등 6~7개 부처 교체 전망

북미정상회담 등으로 2월 개각이 사실상 어려울 전망이다. 특히, 일각에서 제기되는 이낙연 국무총리 교체설도 사실이 아닌 것으로 판명됐다.

11일 청와대 관계자는 북미정상회담 전 개각 가능성에 대해 “인사는 대통령의 결정 사항이어서 말씀드리는 것 자체도 조심스럽다”고 전제한 뒤 “100% 장담을 못 하지만, 특별한 변수가 없는 한 2월에는 없는 것으로 안다”고 덧붙였다. 이 관계자는 이어 “모 언론에서 총리를 개각 대상으로까지 언급했는데, 그럴 가능성은 제로”라고

말했다.

개각이 늦춰지는 이유는 인사검증이라는 측면이 크게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대통령이 임명하면 곧바로 직을 수행할 수 있는 청와대 비서관과 달리 장관의 경우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야 하기 때문이다. 문 대통령이 국내적으로 경제 행보를 이어가고 있고 대외적으로 남북미 비핵화 협상을 진행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개각 단행 이후 ‘인사검증 잡음’이 나온다면 국정운영에 상당한 마이너스 요소가 될 수밖에 없다.

여기에 2월말 제2차 북미 정상회담에 이어 3~4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서울 답방이 예상되는 점도 변수다. 국정운영의 연속성이 중요한 국면에서 장관들을 대폭 바꾸기 어렵다는 것이다.

하지만 ‘3월 개각’은 정설로 받아들여진다. 총선을 1년여 남긴 시점에서 국회의원 출신이거나 출마를 원하는 장관들은 직을 내려놓아야 선거를 준비할 수 있기 때문이다.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 도종환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김영춘 해양수산부 장관 등 민중당 현역의원으로 문재인 정부 1기를 함께 열었던 ‘원년 내각’ 장관들은 교체가 확실시된다.

또 조영규 통일부 장관과 박상기 법무부 장관의 후속 인선도 진행 중에 있는 것으

로 전해졌다. 일각에서는 이효성 방송통신위원장의 교체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다.

당장 교체는 없다고 못박았던 이낙연 총리의 경우도 이르면 5~6월, 늦어도 추석 전후에 개각 대상이 될 수도 있다. 국무총리가 2년 남게 임기를 이어가는 사례를 찾기 어려운데다 총선을 앞두고 정국 흐름이 이 총리가 필요한 국면이 전개될 수 있기 때문이다.

여권 관계자는 “북미정상회담이 성공적으로 끝나고 남북 정상회담의 시기 등이 나오는 3월 초순이나 중순에 개각이 이뤄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최소 6~7개 부처 장관이 교체되는 중폭 이상의 개각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임동욱 기자 tuim@kwangju.co.kr

한국당 ‘반쪽 전대’ 되나

洪 불출마 속 후보 5인 일정 전면 취소…오늘 후보 등록 마감

자유한국당 전당대회가 ‘반쪽’으로 치러질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당 지도부와 당권주자들은 북미정상회담과 일정이 겹친 2·27 전당대회 일정 변경 문제를 놓고 벼랑 끝 대치를 이어가고 있기 때문이다.

당 비상대책위원회와 전당대회 선거관리위원회는 전당대회 후보 등록일을 하루 앞둔 11일에도 오세훈 전 서울시장과 홍준표 전 대표, 심재철·안상수·정우택·주호영 의원 등 6명의 당권주자들이 요구한 전당대회 날짜 연기가 불가하다는 입장을 거듭 확인했다.

김병준 비상대책위원장은 비대위 회의에서 “전당대회는 미북정상회담 결과가 나오기 전인 27일에 예정대로 치르는 게 옳다”고 말했다.

선관위도 이날 오전 전대 일정 연기 여부를 논의하기 위한 긴급 전체회의를 소집, 일정 변경은 안 된다는 입장을 다시 확인했다. 박관용 선관위원장은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결정을 두 번 하는 경우는 없으며, 일정 연기를 재고한다는 등의 얘기는 없었다”면서 “전당대회 보이콧을 하는 것은 그 사람들의 사정이지 우리와 관계없다”고 말했다.

이에 맞서 전날 긴급 회동을 하고 2주 이상 전대 일정을 연기하지 않을 경우 12일 후보 등록을 하지 않겠다고 보이콧을 재확인한 6명의 당권주자들은 이를

째 일정을 전면취소하고 비대위에 대한 압박을 계속했다.

특히 홍 전 대표는 이날 당원들에게 보낸 입장문에서 “끝까지 함께 하지 못해 유감”이라며 2·27 전당대회 불출마를 선언했다.

심재철 의원은 성명을 내고 “단 한 사람을 위한 웅립용 전대로 전략하는 게 누구에게 이득인가. 당 대표 선거가 특정인의 무혈입성을 위한 요식행위가 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정우택 의원은 “이렇게 하면 황교안, 김진태 두 사람끼리 전대를 치러야 할 것”이라고 했고, 오 전 시장 측도 “후보 등록일까지 6명이 같은 입장을 낼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황교안 전 총리와 김진태 의원은 예정대로 후보등록을 하기로 하고, 이날 각각 부산과 제주를 찾아 당원들과 만나 등 정상적으로 일정을 소화했다.

이 같은 ‘강 대 강’ 대치는 12일 후보 등록 마감까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최악의 경우 6명의 후보가 실제 불출마를 선언해 이번 전대가 황 전 총리와 김 의원만으로 치러지는 것 아니냐는 당 내 우려도 점차 커지고 있다. 다만, 비대위가 후보등록 마감 전까지 계속해서 전대 주자들을 설득해보겠다는 입장이어서 양측이 극적인 타협을 이뤄낼 여지도 있는 상황이다.

/박지경 기자 jkpark@kwangju.co.kr



문대통령 “평화는 경제 신 성장동력” 문재인 대통령이 11일 오후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대통령 “북미회담은 중대 전환점”

수석·보좌관 회의 주재…“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일대 진전”

문재인 대통령은 11일 “(2차 북미정상회담은) 이미 큰 원칙을 합의한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새로운 북미관계, 한반도 평화체제를 더욱 구체적으로 진전시키는 중대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2차 북미정상회담은 작년부터 시작된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의 일대 진전”이라며 “이 회담이 한반도를 적대·분쟁의 냉전 지대에서 평화·번영의 터전으로 바뀌는 역사적 회담이 되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분단 이후 처음 맞는 기회를 살리는 게 전쟁 위험에서 완전히 벗어나 평화로 경제가 되는 미래를 키우는 일”

이라며 “남북은 전쟁 없는 평화 시대를 넘어 평화가 경제의 새로운 성장 동력이 되는 시대를 함께 열어가야 한다”고 했다.

하지만 문 대통령은 “아직도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프로세스가 과연 잘 될까 하는 의구심이 적지 않은 게 현실”이라며 “심지어 적대와 분쟁의 시대가 계속되기를 바라는 듯한 세력도 적지 않다”고 지적했다.

문 대통령은 “그러나 남북미 정상이 흔들림 없이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은 역사가 가야 할 방향에 대한 강력한 믿음 때문”이라며 “전례 없는 과감한 외교적 노력으로 70년 깊은 불신의 바다를 건너고 있는 두 지도자의 결단에 경의를 표한다”고 했다.

/임동욱 기자 tuim@kwangju.co.kr

문대통령 국정 지지율 50%대 회복

리얼미터…민중 38.9%·한국당 28.9%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 지지도가 11주 만에 50%대를 회복한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가 YTN 의뢰로 지난 7~8일 전국 유권자 1507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2.5%포인트)한 결과, 문 대통령의 국정수행에 대한 긍정평가는 전주 대비 1.6%포인트 오른 50.4%로 집계됐다고 11일 밝혔다. 부정평가는 전주보다 0.4%포인트 내린 45.4%로, 긍·부정평가의 격차는 5.0%포인트로 벌어졌다.

리얼미터 여론조사 기준으로 문 대통령의 국정 지지도가 50%대를 넘은 것은 지난 해 11월 3주차(52.0%) 이후 11주 만이다.

리얼미터 측은 “이러한 회복세는 작년 말부터 본격화한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노력이 꾸준히 지속되고 2차 북미정상회담 개최와 북미 실무협상 소식 등 최근 한반도 평화 이슈가 긍정적으로 작용한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정당 지지도에서도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전주 대비 0.7%포인트 오른 38.9%, 자유한국당 역시 1.5%포인트 오른 28.9%로 4주 연속 상승세를 나타냈다.

바른미래당은 0.5%포인트 오른 6.8%, 정의당은 1.0%포인트 내린 6.2%로 2주 연속 하락했다. 민주평화당은 0.4%포인트 오른 2.9%를 기록했다.

/박지경 기자 jkpark@kwangju.co.kr

김태우 “전 특감반장 소환 조사해야”

“드루킹 USB 파악 지시”… 오늘 수원지검 출석

청와대 특별감찰반의 민간인 사찰 등 의혹을 제기한 김태우 전 검찰 수사관이 12일 오전 수원지검에서 조사를 받는다. 청와대가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그를 고발한 데 따른 것이다.

김 전 수사관은 지난 10일 이인걸 전 청와대 특감반장이 드루킹 김동원 씨가 특검에 제출한 USB(이동형 저장장치)에 대해 알아보고 지시했다고 주장했다.

김 전 수사관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18년 7월 25일 오전 11시 11분, 특감반장 이인걸은 저를 포함한 검찰 출신 특감반원 4명에게 텔레그램 단체방에서 언론기사 링크를 올렸다”며 “그 기사 내용은 드루킹이 60기가 분량의 USB를 특검에 제출했다는 내용이었다”고 말문을 폈다.

이 전 특감반장은 “이거 맞는지, USB에 대략 어떤 내용 있는지 알아보면 좋겠는데”라고 텔레그램 단체방에서 지시를 내렸다. 이어 13분 뒤 박모 특감반원이 “USB 제출은 사실이고, (그 USB 자료의 내용은)

김경수와의 메신저 내용 포함하여 댓글 조작 과정상 문건이라고 합니다”라고 보고했다고 김 전 수사관은 말했다.

김 전 수사관은 “특감반장이 특감반원들에게 지시한 텔레그램 지시내용과 박모 특감반원의 보고내용은 제 휴대폰에서 발견됐다. 증거가 완벽히 보존돼 있다”며 “서울동부지검은 주저하지 말고 이 전 특감반장을 소환 조사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이 전 특감반장에게 위와 같은 지시를 시킨 사람이 누군지 저는 알고 있지만 수사로 밝혀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 전 수사관은 청와대 특감반에서 국립공원위원회의 흑산도 공항건설 심의 의결 현황을 조사했다는 주장도 내놔다. 김 전 수사관은 “2018년 9월에 이 전 특감반장과 김태근 사무관은 ‘김은경 환경부 장관이 흑산도 공항건설을 반대하니 즉시 사표 받아야 한다. 태우 네가 김은경 장관 감찰보고서를 써라’ 이렇게 지시했다”고 주장했다.

/연합뉴스

방수

부분설비(누수)

부위별 방수시스템!
분야별 방수시스템!!
최적의 방수 시스템!!



“최선을 다하여 성실 시공합니다”

광주 062)676-7719
전남 061)375-7719
H.010-3629-7719

무료견적 시공상담

방수전문그룹 **CHILMAN**
광주,전남 시공회사

CMTECH
(주)씨엠테크북합방수

걱정하지 마세요!!

“칠만표방수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주)씨엠테크북합방수

유시름, 모방품에 주의하세요!!

시공 및 제품 판매 / 셀프시공가능

“소비자가 인정했습니다”

제 7 회 전국 교역자 및 성도 세미나 (초교파)

하나님과 여호와, 예수님과 멜기세덱, 그들은 어떻게 다른가?

강사 : 다시복음으로 본 구속사 시리즈 저자 조영래 목사 직강

▶일시: 2019년 2월 15일(금) ~ 2월 16일(토) 14:00~18:00

▶장소: 전주시 덕진구 가리내로 52 한국노총전북지역본부 대회의실(4층)

▶문의 및 신청: 010-8535-2007, 010-8991-7487, 010-9114-6654

▶참가비: 없음

▶블로그: blog.naver.com/osbooks

▶주최: 오색이슬교회(대한예수교장로회 대신개혁 중부노회)

다시복음으로 본 구속사 시리즈(판매 중)

1권 멜기세덱, 그는 누구인가? / **2권** 이 땅의 주, 그는 누구인가?

3권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 그들은 누구인가? / **4권** 네 생물, 그들은 누구인가?

5권 666, 그들은 누구인가? / **별책** 장안산(上)

출간 예정 : **6권** '작은책', **7권** '멜기세덱 후편',
8권 '이땅의 전쟁은 이나라 이민족의 운명이다'
9권 '하나님과 여호와는 어떻게 다른가?','
10권 예수님과 멜기세덱은 어떻게 다른가? / **별책** '장안산(下)

